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
국내연구 메타분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박 유 리

2017년 8월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 국내연구 메타분석

지도교수 최 보 영

박 유 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6월

박유리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년 8월

<국문초록>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 국내연구 메타분석

박 유 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국내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관련변인의 선택과 분류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과정을 설명 할 수 있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구인변인인 개인변인, 근접맥락변인, 자기효능감 변인, 목표변인과 대학생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구인 중에 하나인 자기개념을 변인군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출간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한 국내논문 중 150개의 연구가 포함되었으며 339개의 효과크기가 사용되었다. 효과크기의 분석을 위해 R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먼저 출판편향을 확인하기 위해 funnel plot를 실시하였으며, 효과크기 분석을 위해 상관계수를 효과크기 변환 값으로 사용하였다. 효과크기는 Cohen(1988)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였으며, 효과크기에 대한 해석을 보완하기 위해 비중복백분위(U_3)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준비행동은 총 5개의 변인군과 19개의 관련 변인이 추출되었다. 변인군에서는 개인변인과 근접맥락 변인의 효과크기 수가 가장 많았으며, 관련 변인으로는 성별, 학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변인이 가장 많은 효과크기 수로 분석이 되었다.

둘째, 전체 변인군 중 자기효능감 변인군이 큰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자기개념과 목표변인군이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또한 개인변인군과 근접맥락변인군은 변인군 자체에 정적 효과와 부적 효과크기를 나타내는 변인들로 인하여 변인군의 효과크기가 미비하게 나타났다.

셋째, 진로준비행동의 관련 변인 중에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효과크기가 가장 컸으며, 탄력성도 큰효과크기를 나타냈다. 또한 희망,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사회적지지, 부모지지가 정적효과를 나타내는 중간효과크기로 분석되었으며, 진로장벽은 부적효과를 나타내는 중간효과크기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하여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진로장벽과 같이 부적효과를 나타내는 변인도 있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탄력성, 희망, 사회적지지, 부모지지 같은 정적 효과를 가지는 변인도 있으며, 그 변인들의 영향력이 더 높다는 것이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국내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하며, 진로상담 장면에 있어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공하는 근거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메타분석, 사회인지진로이론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4
II. 이론적 배경	5
1. 진로준비행동	5
가. 진로준비행동의 개념	5
나. 진로준비행동의 연구동향 및 한계점	6
다. 진로준비행동의 선행 메타분석	8
2. 진로준비행동의 관련 변인	10
가. 진로준비행동과 개인변인	11
나. 진로준비행동과 자기개념 관련 변인	14
다. 진로준비행동과 근접맥락 관련 변인	15
라. 진로준비행동과 자기효능감 관련 변인	18
마. 진로준비행동과 목표 관련 변인	20
3. 메타분석	21
III. 연구방법	22
1. 연구대상 및 절차	22
2. 자료의 수집 및 선정	23
가. 자료의 수집	23
나. 자료의 선정	23
3. 자료의 처리	26
가. 자료의 코딩	26
나. 효과크기 산출	26

다. 효과크기의 분석	28
라. 효과크기의 해석	29
IV. 연구결과	31
1. 출판편향	31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33
3. 변인군의 전체 효과크기	35
4. 개인변인의 효과크기	37
5. 자기개념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	39
6. 근접맥락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	39
7. 자기효능감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	41
8. 목표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	41
V. 논의 및 결론	43
1. 결론 요약 및 논의	43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47
VI. 참고문헌	49
Abstract	69
부 록	70

표 목 차

표 III-1. 진로준비행동검사의 신뢰도	25
표 IV-1. 분석 대상 논문의 특성	33
표 IV-2. 진로준비행동 관련 연구의 주요 변인	35
표 IV-3.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군 별 효과크기	36
표 IV-4. 진로준비행동과 개인변인군의 변인별 효과크기	38
표 IV-5. 진로준비행동과 자기개념군의 변인별 효과크기	39
표 IV-6. 진로준비행동과 근접맥락 변인군의 변인별 효과크기	40
표 IV-7. 진로준비행동과 자기효능감 변인군의 변인별 효과크기	41
표 IV-8. 진로준비행동과 목표 변인군의 변인 효과크기	42
표 V-1.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변인의 효과크기	45

그림 목 차

그림 II-1.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선택모형	10
그림 III-1. 메타분석의 절차	22
그림 III-2. 분석대상 논문 선정과정 PRISMA flowchart	24
그림 III-3. 다양한 효과크기의 상호전환	26
그림 III-4. Fisher's Z 전환 공식	27
그림 III-5. t-값의 전환 공식	27
그림 III-6. F-값의 전환 공식	28
그림 IV-1. 진로준비행동의 전체 출판편향	31
그림 IV-2. 진로준비행동의 개인변인 출판편향	32
그림 IV-3. 진로준비행동의 자기개념변인 출판편향	32
그림 IV-4. 진로준비행동의 근접맥락 변인 출판편향	32
그림 IV-5. 진로준비행동의 자기효능감 변인 출판편향	32
그림 IV-6. 진로준비행동의 목표관련 변인 출판편향	3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진로와 직업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시대보다 높다. 경제는 본격적으로 저성장화 구조로 들어섰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학벌주의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성적에 맞추어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중·고등학교 시기에 자신의 직업에 대해 고민할 여유와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채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유수복, 2013). 때문에 진로를 고민할 시간을 위해 스스로 대학졸업 등을 유예하는 갭이어(Gap year)의 시간을 갖는 대학생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 갭이어의 시간조차도 진로에 대한 탐색이 아닌 스펙을 쌓는 시간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파이낸셜뉴스, 2016. 01. 31). 또한, 2015년 대학 진로교육 실태 모니터링에 따르면 대학 내 진로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에서(5점 척도) 평균 4.24로 응답자의 89.9%가 대학 내에서 진로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2016).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 내의 개인 상담을 신청하는 학생들의 주요 호소문제는 주로 진로나 적성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볼 때 실제적인 욕구와 고민이 상담신청으로까지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김봉환, 1997; 이미진, 2012; 한정신, 1991). 특히 주목 할 만한 점은 상당수의 학생이 장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실천계획과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김현수, 장기명, 이난, 2004).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김봉환(1997)의 연구를 시작으로 진로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진로 결정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자신의 진로 달성을 위하여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역으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때문에 이러한 진로에 대한 관심의 영역을 확대한 김봉환(1997)의 연구는 지금까지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의 연구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는 이전의 진로와 관련한 연구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

제들의 대부분이 개인의 인지(cognition)나 태도(attitude)에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보았다. 반면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behavior)이나 혹은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 등을 포함하는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했다고 보았다(김봉환, 1997). 이 연구가 이루어진 후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김봉환(1997)의 연구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2017년 4월 집계로 상세정보조회건수가 1,484건일 정도로 관심이 높은 연구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진로준비행동과 더불어 진로의 행동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연구들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는 ‘직업탐색행동(job search behavior)’과 ‘취업준비행동(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이 있다. 직업탐색행동은 개인의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 대안들을 검토하고, 확장하며, 그 중에서 결정을 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며(Smith & Gerhart, 1991), 취업준비행동은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당면한 취업과제해결을 위한 행동(이제경, 이승구, 2007)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용어들을 진로준비행동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진로준비행동은 대학생의 진로선택부터 직업에 대한 준비까지 진로 발달과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 볼 수 있는 용어인 반면, 직업탐색행동과 취업준비행동은 좀 더 구체적인 진로선택 이후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적절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모델은 개인의 진로효능감을 중심으로 진로선택 과정에서의 심리·사회적 요인을 설명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이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진로발달을 개인 내적인 변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변인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Lent, Brown, & Hackett, 2000), 구체적인 진로결정과정의 모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상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의 경제부진으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과 대학생이 경험하는 진로선택 과정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이론적 틀이라고 볼 수 있다(김영혜, 안현희, 2012). 이렇듯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배경으로 매년 진로와 관련된 연구가 다양한 변인과 다양한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진로에 대하여 직접 준비하고 행동하는 시기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에 관한 연구는 2013년도부터는 매년 30편 이상이 연구 결과가 발표될 만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개인 내적변인, 환경적 변인

을 아우르고 있으며, 대상 또한 장애가 있는 대학생, 체육계열 대학생, 외식관련 학과 대학생, 사회복지 관련 대학생 등 세분화하여 적용, 연구하고 있다.

이렇듯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는 김봉환(1997)의 연구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의 결과가 축적됨과 동시에 같은 변인의 연구 중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도 발생한다. 구체적인 예로 진로준비행동에서 개인적 특성별 변인인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수준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다고 연구(이기학, 1997) 한 바 있다. 반면에 김희진(200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성별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상관연구를 살펴 볼 때 김정화, 김미경, 김진경, 고은영(2012)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잘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반면, 박초희(2012)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 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 진로준비행동변인에 대한 진로결정수준의 상관에 대한 상충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서로 상충되거나 상관 값의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결과들은 연구자들이 특정한 연구결과에만 의존하여 연구되었을 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황성동, 2015).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개발된 메타분석은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체계적이고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종합적인 분석 방법을 의미한다(황성동, 2015). 메타분석에 대해 Pillemer와 Light(1980)는 개별 연구의 표집을 종합하여 좀 더 큰 표집을 가지고 가설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통계적 검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좀 더 정확한 효과크기를 추정할 수 있으며, 관심있는 두 변인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잘 파악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상충하는 연구 결과가 있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보았다.

진로준비행동 역시 상이한 연구결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미진(2012)이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연구에서 2000년부터 2012년 2월까지의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연구의 메타분석을 한 선행연구가 있었다. 아쉽게도 이미진(2012)의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관련 변인과 관련

된 연구를 국내연구 중 석사, 박사학위 논문만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으며, 대학생이라는 대상에서 다양한 전공, 특징의 연구를 제외하여 본래의 국내연구를 통합한다는 목적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선행논문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발표된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2012년 이후에 급속도로 많아진 진로준비행동을 변인으로 한 연구들을 포함하여 통합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메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군 별 전체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대학생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과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준비행동

가. 진로준비행동의 개념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behavior)이나 혹은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김봉환, 김계현, 1997). 진로준비행동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전, 대부분의 진로관련 연구는 인식이나 태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직업탐색, 구직행동, 취업전략과 같이 실천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유사한 용어가 사용되기는 했으나, 이는 직업세계에 진입하기 직전의 구직관련 행동을 강조하는 것으로 직업을 결정하기 이전부터 이루어지는 실천행동도 포괄적으로 내포하는 진로준비행동과는 차이가 있다(서희정, 윤명희, 2011).

국내 연구에서는 김봉환(1997)에 의해서 처음으로 진로준비행동이 진로 연구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영역으로 개념화가 시작 되었다.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의 충실도와 행위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첫째, 정보수집 활동이다.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성격 등과 같이 자신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고 현황, 전망, 취업방법, 필수요건, 승진경로, 작업환경 등과 같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둘째,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다.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나 교재 등을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각 직업에 따로 요구하는 자격증 혹은 면허증을 획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다. 목표달성에 필요한 도구와의 상호작용으로 이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직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와 도구를 구

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시간과 노력을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진로준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들은 미리 예측이 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도 가능하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기대(expectedness), 그리고 준비(preparedness)이다. 이 중에서 특히 '준비'는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구상, 그와 같은 결과를 다루기 위한 전략의 개발, 부정적 결과에 대한 구상, 그와 같은 결과를 다루기 위한 전략의 개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동적인 노력 등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진로를 결정 혹은 선택하는 일은 분명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진로선택을 미리 예견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행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Brown, Heath, 1984).

나. 진로준비행동의 연구동향 및 한계점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1997)의 척도개발 이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현재 김봉환(1997)의 연구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2017년 4월 집계로 상세정보 조회건수 1,484건이며, 학술지 게재 논문인 김봉환, 김계현(1997)의 연구의 경우 누리미디어(DBpia) 집계 상 2010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원문 이용 수 675건이며, 논문 이용 건수는 총 19건을 기록하고 있다. 김봉환, 김계현(1997)의 연구는 또한 누리미디어(DPpia)에서 최근 24개월간의 논문 이용 수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논문 활용도 분석에서 2017년 3월 기준으로 심리과학 분야 총 14,442개의 논문 가운데 활용도 상위 1%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저널의 총 936개의 논문 가운데에서는 상위 2%의 논문 활용도를 보인다.

진로준비행동의 개념은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그리고 그에 관련된 연구 분야가 인지나 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봉환, 김계현, 1997). 이후 앞선 통계에서 보여지 듯 진로준비 행동이라는 개념은 진로관련 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김영혜, 안

현희(2012)의 사회인지진로이론 관점에 근거한 국내 진로발달연구의 동향 분석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 주요구인 중 진로준비행동 변인을 결과변인으로 보고 분석 하였다. 결과구인으로 제시된 다양한 진로관련 변인 중 진로준비행동은 전체 결과변인 중 21.1%의 연구 빈도를 보였다. 이는 다른 변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된 구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의 측정에 있어서는 김봉환(1997)의 진로준비행동 검사가 측정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진로준비행동의 척도가 행동변인을 측정하는 도구로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척도의 사용 빈도가 김봉환(1997)에 한정된 경향은 타당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일 수 있고, 동일한 개념에 대한 도구들이 통일 될 때 연구 결과를 비교 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김영혜, 안현희, 2012).

이렇듯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김봉환(1997)의 연구 이후 연구물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을 밝히는 연구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변인을 밝히는 연구 이외에도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질적 연구(김미영, 2015; 김지혜, 2008), 프로그램 개발 연구(고성자, 이영화, 홍성관, 이형갑, 2015; 서우석, 2017; 조성심, 주석진, 2015) 등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또한 연구의 대상에도 중학생(금경희, 조영아, 2017; 김진숙, 2013; 어은선, 탁진국, 2014), 고등학생(김수정, 송성화, 조민경, 2013; 정소영, 이한주, 2014; 박완성, 2003), 경력단절 여성(유희정, 2015; 이희정, 김금미, 2010; 최유진, 손은정, 2016), 장애인(유훈, 김계현, 2015; 임혜경, 2017; 임혜경, 강영심, 2015) 등 다양한 대상으로 한 연구물도 발표되고 있다. 그 중 대학생과 관련한 진로준비행동 연구물은 2017년 4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기준으로 학위논문 290편, 학술지논문 316편으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연구들의 상충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성별과 관련된 연구결과에 경우 김주희(2013)의 연구에서는 남, 여의 차이에서 남학생이 진로준비행동 점수가 더 높게 나온 반면, 강윤심(2010)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 점수가 더 높게 나온다. 또한 진로결정수준 변인에서 김정화, 김미경, 김진경, 고은영(2012)의 연구에서는 진로

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잘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반면, 박초희(2012)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 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 같은 독립변인에 대하여 상충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결과물이 많아지면서 상충되는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어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때문에 진로준비행동과 다른 변인 간의 영향력에 대하여 일관된 결과가 요구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통하여 진로준비행동의 국내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다. 진로준비행동의 선행 메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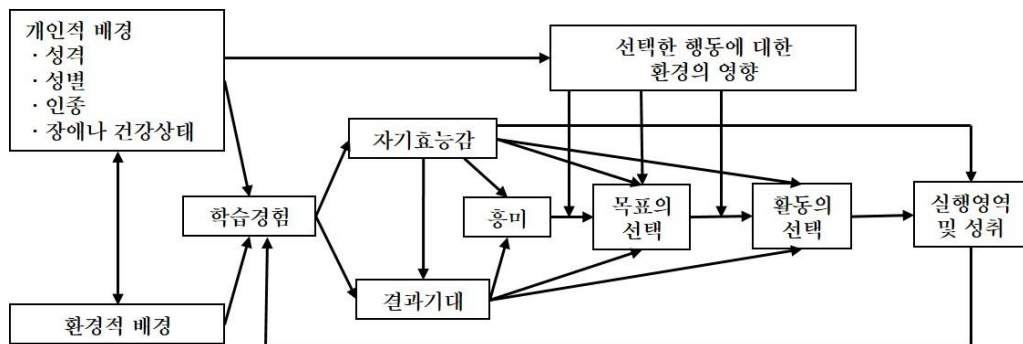
국내에서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한 메타분석 연구는 이미진(2012)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국내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인특성별 변인,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 대학생과 관련된 분석대상 논문은 총 46편이었으며, 인구학적 변인의 사례 수는 총 57개로 성별, 학년, 계열별의 변인이 포함 되었으며 총 효과크기는 .173로 Cohen(1988)의 효과크기 해석으로 볼 때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은 고등학생 대상의 논문과 대학생 대상의 논문이 합하여 분석 되었으며, 심리적 변인, 진로 변인 군, 외부 지지변인 군으로 세분화 하였다. 심리적 변인 군에는 희망, 자기격려, 자아분화, 성취동기, 완벽성, 불안, 자기효능감 변인이 포함되었고 총 22개의 논문이 분석 되었다. 심리적 변인 군의 총 효과크기는 .468로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진로 변인 군에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장벽, 진로의사결정수준, 진로태도성숙,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 자율성, 직업가치, 진로정체감이 포함되었으며, 총 사례 수는 65편으로 총 효과크기는 .401로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외부 지지변인 군에는 부모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변인으로 포함 되었으며 총 분석논문은 6편으로 효과크기는 .641로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이미진(2012)의 연구는 김봉환(1997)의 연구 이후 국내에서 출간된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을 통합하고 객관적이고 신뢰 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미진(2012)의 연구는 인구학적 변인을 제외하고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분석하였기에 국내 대학생들의 독특한 진로발달 과정을 살펴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모두 수집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논문을 학위논문으로만 한정된 점에서 국내의 출간된 모든 논문을 살펴보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효과들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하며, 선행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학술지 논문을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진로준비행동의 관련 변인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이 진로와 관련하여 인지나 태도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진로준비를 위한 실천적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다(김봉환, 1997). 또한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진로발달 및 선택에 대한 변인 중 결과변인으로 설명되고 있다(김영혜, 안현의, 2012). 실제로 김영혜, 안현의(2012)의 연구에서 사회인지진로이론 주요 구인별 빈도를 보면 결과변인 중 진로준비행동에 관련 연구변인의 빈도가 11회로 결과변인 중 21.2%의 연구 비율을 차지 할 정도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델 그림Ⅱ-1을 가지고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높게 나타난다. 또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자기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변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회인지진로이론이 제안한 모형들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본으로 한 상담의 궁극적 목적은 진로과업을 수행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진로행동으로 보고 있다(김봉환, 201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메타분석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Ⅱ-1>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선택모형

또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기본으로 한 모델 이외에 Choi(2012)의 연구에서 제시한 자기-개념(self-concept)영역을 포함하고자 한다. 이 범주는 본래 사회인지진로이론 모델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자주 특정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델을 확장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

공하기 위해 자기개념 범주를 추가하였다(Choi et al., 2012). 이렇듯 본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델을 이루는 변인군과 자기개념을 변인군의 범주로 하여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들의 관계성을 메타분석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가. 진로준비행동과 개인변인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라 개인적 배경 변인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성(gender), 민족 혹은 인종, 신체적 건강 혹은 장애, 유전적 지능, 성격 등을 개인의 진로흥미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인변인으로 여긴다(김봉환 외, 2010). 개인변인 중 성별과 관련된 진로준비행동 연구는 활발히 연구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한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방대학생과 수도권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를 연구한 강윤심(2010)의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주희(2013)의 진로준비행동 연구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같이 연령도 진로준비행동과 함께 다루어지는 주요한 개인변인 중 하나이다. 특히 진로 발달 수준에 따라 진로결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Ginzberg(1951)과 Super(1980)의 이론을 참고 할 때 대학생의 진로발달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Ginzberg(1951)의 진로발달에서는 대학생의 시기를 현실화기(17세 이상)로 보고 있어 대학생 시기에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현실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Super(1980)의 전 생애 발달이론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탐색기(14~24세)의 마지막 시기인 실행기(implementation)에 해당될 수 있으며, 확립기(25~45세)의 초기 시기로 직업탐색과 결정, 실행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연령 변인은 진로발달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 할 수 있으며, 학년 역시 연령 변인과 더불어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실제 국내 연구 중 강희순(2010)의 연구에서 20세 이

하의 초기 대학생의 연령보다 21세부터 24세의 시기의 대학생이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보다 25세 이상 연령의 대학생이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있어서도 장윤정(2007)의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 갈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학생 시기의 연령과 나이 변인은 그 시기가 바뀔에 따라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 시기의 성적(학점) 변인은 많은 연구들에서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박주연(2013)의 연구에서는 본인의 성적에 대한 인식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성적이 높다고 생각 하는 집단일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으며, 조연교(2014)의 연구에서도 본인의 성적을 높게 응답한 집단일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변인에서 추출된 특성변인은 완벽성, 탄력성, 불안, 희망 변인이다. 먼저 완벽성은 상황에 필요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행을 자신이나 타인에게 요구하는 성향을 의미한다(박윤아, 2011). 완벽성은 단일 차원의 개인적 특성이라기보다는 대인관계를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성향(Hewitt&Flett, 1991)으로 볼 수 있으며, 부적응적인 측면과 건강한 측면을 양 끝으로 하는 심리적인 연속체라 할 수 있다(Suddarth, 1996). 국내 연구 중 완벽성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가수정(2013)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진로준비행동이 정적 상관을 보여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많이 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반대로 박윤아(201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중 저학년의 경우에서 진로준비행동과 완벽성의 관계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연구자는 이 현상을 대학생의 고학년의 경우 취업이 어려운 현대사회에서 완벽성과 무관하게 진로에 대한 준비 및 취업에 대한 준비와 노력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하였다.

탄력성의 경우 자아탄력성, 회복탄력성, 진로탄력성 등의 용어로 세분화 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스트레스나 위험을 유발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그 상황에 적응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Luthar, 1991; Newnam, 2005; Rutter, 1987). 탄력성과 관련된 연구는 현재까지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다. 그동안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발달연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강영미, 유순화, 윤경미,

2009; 이해리, 조한익, 2006). 최근에는 직접적인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적응성과 관련한 이슈를 가진 대학생에 대한 연구들이 출판되기 시작하여 탄력성과 관련된 결과들을 볼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김지연, 이기학(2014)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마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자아가 탄력적인 대학생일수록 자아가 경직된 대학생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장이슬, 송병국(2015)에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이는 이진원(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보고 하였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심리적 변인 중 하나인 불안은(김봉환, 1997; 이제경, 김동일, 2004; 진미경, 1999) 진로준비행동과 부적 관계를 주로 보이는 변인 중 하나이다. 불안은 가장 기본적인 정신병리 현상이다. 이는 사람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불안에 시달리게 되면 소위 정신신체증상(Psychosomatic Syndrome)이 일어나 몸 전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Roll May, 1974). 국내의 연구에서 문선아(2000)의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과 불안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조사 당시의 현실적인 경기불황과 사회문제로 불안과 관계없이 개인의 의욕저하로 인한 수행의 감소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표집 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주명진, 김정남(2011)의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과 불안의 관계에서 불안의 하위요인인 상태불안에서 진로준비행동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연구자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불안이 무조건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긴장을 유발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상태불안의 상황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촉발시키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오은주(2014)의 연구에서는 특성 불안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특성불안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경태, 2003; 이제경, 김동일, 2004)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성격특성 중 희망변인에 대해 Erikson(1963)은 ‘희망은 생존 초기의 특징인 어두운 추동과 격분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달성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속적인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심리 사회적 발달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기본적인

신뢰와 불신 간에 균형을 이루었을 때 생기게 되는 힘을 희망으로 보았다. Stotland(1969)는 그의 저서인 ‘희망심리학(positive psychology)’에서 희망은 성공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며 무망감은 성공에 한 낮은 기대감이라고 하면서 희망을 ‘목표 획득을 한 경기’로 정의한다. 또한 Snyder(1994a)는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이며, 실패보다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달성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지각하며,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았다. 반면, 희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실패에 초점을 맞추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았다. 국내의 관련 연구에서는 김선중(2005)의 연구에서 희망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신종임, 현채송(2008)의 연구에서도 희망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나. 진로준비행동과 자기개념 관련 변인

Super(1963)에 따르면 자기개념(Self-concept)은 어떤 역할, 상황, 지위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련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상을 제공한다. 또한 Super는 자기개념을 흥미나 적성 검사를 통한 객관적 측정으로 나타나는 ‘대상으로서의 자기’와 자기에 대한 주관적 이해를 일컫는 ‘주체로서의 자기’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기개념은 본래 사회인지진로이론에 포함되지 않지만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자주 측정되는 개념으로 Choi(2012)의 연구에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델을 확장할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했던 범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관련 변인을 분석에 포함시키고 자기개념 변인군에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을 포함시켰다.

Super(1990)에 의하면, 진로발달은 자아와 관련된 위기를 극복해 나감에 따른 전반적인 인지발달 과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자아정체감을 진로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하였다(조명실, 최경숙, 2007). 자아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 변인의 관계를 분석한 김희진(2001)의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주체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

성, 친밀성에서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자기수용성 요인은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자아정체감이 올라갈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조명실, 최경숙(2007)의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정체감으로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진로정체감은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갖추었는지를 의미한다(양진희, 2007). Tiedeman과 O'Hara(1963)는 진로발달을 진로정체감을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보고, 진로정체감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제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 또는 생각이라고 하였다. Super(1953)는 전 생애를 걸쳐 진로경향성을 확고히 하는데 진로정체감과 같은 의미인 직업적 자아개념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광자, 2004).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 연구 중 양진희(2007)의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을 예측하였을 때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지능 등에 관하여 보다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을 때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다. 진로준비행동과 근접맥락 관련 변인

Lent, Brown, Hackett(2000)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환경적 변인들 중에서도 근접맥락변인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예컨대 개인이 비록 특정 영역에서 흥미를 형성하더라도 진로를 선택할 당시 경제적 상황이 침체기여서 해당 영역에서 원하는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다든지, 혹은 부모가 취미로서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해당 영역에서 직업을 추구하는 것을 반대 할 수도 있다. 즉, 개인의 흥미가 자유롭게 진로목표와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최적의 환경(맥락)에서 개인의 흥미가 진로목표와 실천으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김봉환, 2010)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 근접맥락 관련 변인은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맥락 변인으로 추출된 변인은 경제상황, 부모애착, 부모지지,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장벽이다. 경제상황은 근접맥락 변인의 대표적인 변인 중 하나이다. 경제상황은 진로선택 과정에서 중재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개인이 진로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있을 때 가족의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개인의 흥미와 관련된 진로를 탐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김봉환, 2010). 이렇듯 경제상황이 개인의 진로발달에 있어 중재변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에서는 경제상황과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된 연구들을 볼 때 개인이 지각한 경제상황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유의미한 연구들이 나타났다(김미주, 2011; 유하림, 2007; 이현진, 2009).

애착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형성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로서 개인에게 안정감과 정서적 위안을 주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일컫는다(장휘숙, 1997; Ainsworth, 1989; Bowlby, 1988). Armsden과 Greengerg(1987)는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또래애착과 심리적 안녕, 자존감, 삶에 대한 만족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부모 및 또래의 애착 안정성이 높은 집단은 자존감,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우울, 불안, 죄의식, 분노, 소외, 자기 개념의 혼란은 낮게 나타났다. Ketterson과 Blustein(1997)의 연구에서는 애착관계가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공고할수록 자녀가 환경적 내면적 모두에서 진로탐색에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동선(2003)의 연구에서는 애착과 대학생의 진로탐색의 관련성에서 이들의 관계성이 매우 낮아 부모나 동료와의 심리적인 애착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문명녀(2015)의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애착과 진로준비행동관계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는 상호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대표하는 개념인 사회적 지지, 특히 부모의 지지는 자녀의 진로태도나 진로발달에 무엇보다 중요한 가정환경적 요인이다(이지연, 2013). Astin(1984)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며, Furman과 Buhrmester

(1992)는 다양한 사회적지지 제공자 중에서도 부모가 가장 중요한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보고하였다. 부모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위선희(2013)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부모지지 중에도 정보적 지지의 중요성이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직업에 기회를 알려주거나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신종임, 현채송(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에 있어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타인들로부터 제공 받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을 의미한다(Cohen&Hoberman, 1983).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도구적지지 중 한개 이상이 포함된 대인 관계적 거래라고 하며 제공하는 사람으로는 배우자, 부모, 동료, 가족, 친지, 은사, 전문가 등이 있다(House, 1981). 또한 사회적 지지는 타인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는 정서적지지, 타인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거나 정보 그 자체를 정보적 지지라고 하며, 돈, 신체적 원조, 책, 운송수단 등과 같은 물질적인 재료들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물리적지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고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평가적 지지로 분류한다(Birch, 1998). 박지원(1985)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념을 통합하여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개인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의 가족, 친구, 기타 타인으로부터 받은 여러 형태의 원조라고 정의하며 사회망의 구성원을 통해 정서적, 물리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정대인, 홍아정(201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정보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의 도구구비 활동과 목표달성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물질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현지, 홍아정(201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율성이란 진로 결정 및 준비과정에서 개인이 지각한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로결정 자율성이 높다는 것은 진로 결정과 관련된 활동이 재미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이럴 경우 개인의 자율성 욕구가 충족된

것으로 보았다(Deci&Ryan, 1985). 진로결정 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국내연구 중 이은주(201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고학년)의 진로결정 자율성은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결정 자율성의 4유형 동기 중에서 자신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확인된 조절과 만족감이나 즐거움, 재미를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내재적 동기는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소연, 이숙정(2013)의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진로결정 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의 분석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의 관계를 나타냈다.

최근에는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적 맥락이나 환경적 요인이 진로결정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진로장벽 변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했다(손은령, 김계현, 2002; Lent, Brown, & Hackett, 2000; Mcwhiter, 1997). 진로장벽은 원래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진로와 관련된 부정적 경험이나 사건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연구되기 시작되었는데, 진로목표의 성취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자신감 부족, 낮은 동기 등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과 교육 기회의 부족, 가난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진로장벽에 포함된다(Crites, 1969).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장벽에 대한 연구는 근접맥락 변인군에서도 가장 많은 연구 비중을 나타낸다. 국내 연구에서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과 부적 상관의 결과를 도출한다. 장이슬, 송병국(2015)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과의 상관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오은주(2014)의 연구에서도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분석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했을 때 완전매개의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중재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 하였다.

라. 진로준비행동과 자기효능감 관련 변인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르면 자기효능감 변인은 진로에 대한 흥미유발, 목표의 선택, 행동의 실천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변인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있다. 먼저 자기 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개인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 개인의 능력인지로 볼 수 있다. 또한 행동의 선택, 수행 그리고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자기 효능감은 행동 및 행동변화의 주요한 매개변인으로 연구자들은 보고 있다(이미진, 2012). 즉, 자기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없을수록 어려운 환경에서 포기를 쉽게 하며, 이와 반대로 특정과제에서 자기 효능감이 강할수록 그 과제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그러한 행동을 지속하는 시간도 길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들 중 손수진(2007)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을 때,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지은(2006)의 연구 역시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관련변인 중 중요하게 연구되는 변인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된다(Betz&Hackett, 1981).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하는데 Bandura(1977)에 의해 소개된 자기효능감의 이론을 바탕으로 Betz와 Hackett이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되는 개인적 효능감을 특별히 진로 자기효능감(Career Self-Efficacy)로 개념화 하였다. 그들은 자기효능감이 개인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설명하고 예언 할 때 유용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자기효능감이 성취행동, 진로결정 그리고 선택한 학문적 진로에서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가정 아래 진로발달모델에 자기효능감을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처음으로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와 직업분야에 적용하였다(강정은, 2008). 이후 Taylor와 Betz(1983)가 진로결정 효능감을 처음으로 소개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 CDMSE)’를 개발하면서 일반적으로 진로결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제안하여 특정 과제에 국한되어 있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일반적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개념으로 전환하였다(강정은, 2008).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한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선

택모형과 관련하여 인과관계를 밝히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김선중(2005)의 연구에서 연구자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다고 밝혔으며, 이후 후속 연구들(한주원, 2013; 유수복, 윤혜미, 2014; 송윤정, 조규관, 2015)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며, 높은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마. 진로준비행동과 목표 관련 변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목표 변인에는 진로의사결정수준 변인이 포함된다. 진로결정은 개인이 그들의 생애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선택시점에서 결정하게 되는 결정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써, 개인이 특별한 직업에 입문하기 위한 의도의 표현이다(Crites, 1973). 진로결정수준은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전공선택 및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해 확고히 정한 정도를 일컫는 것으로 이는 곧 진로미결정 수준을 의미하기도 한다(이성애, 2005). 진로의사결정수준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축적되면서 진로미결정이라는 구성개념을 결정 대 미결정의 이분법으로 이루어진 변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다(Larson et al., 1994) 진로미결정자를 단순히 동일한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하기보다 이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몇 가지 하위유형으로 나눌 필요가 제기되기도 하였다(이기학, 2003). 진로결정 수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윤희(2002)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한다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밝혔으며, 김경욱(2009)의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밝히고 있다.

3. 메타분석

‘Meta’란 ‘사후에 일어나는’ 또는 ‘transcending(초월하다)’의 뜻으로서 원래의 정보를 이용하여 더욱 조직화되고 구체화된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 낸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황정규, 1995). 그러므로 메타분석은 선행 연구 결과를 고찰하는 연구방법으로 동일한 주제에 대한 개별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메타분석은 개별적인 연구결과를 분석단위로 하여 이를 통계적으로 재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한다(성하은,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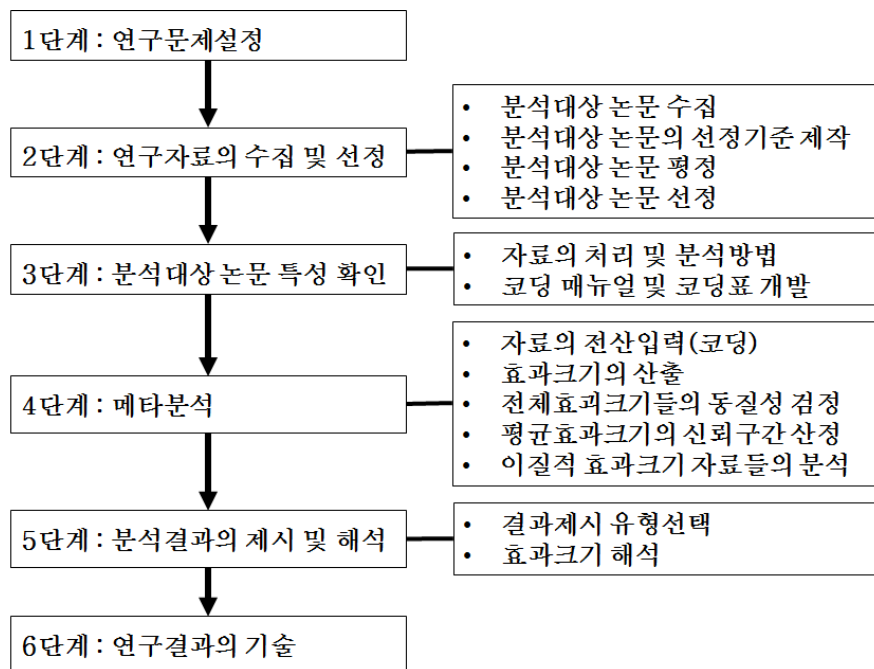
Glass(1976)는 메타분석의 특성을 세가지로 요약하였다. 첫 번째로 메타분석은 단순한 자료의 나열을 넘어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함축적으로 분류하고 그 분류 속에서 의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계량적, 통계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특성이 있다. 두 번째로 메타분석은 상이한 연구 결과를 하나로 모아 효과 크기를 계산하므로 상충된 연구결과라 할지라도 특정 분야의 연구들이 모두 수용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메타분석은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메타분석은 결과가 서로 다른 수많은 양적인 연구들을 특정 단위로 통합하여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Glass, 1976).

메타분석은 몇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 Pillemer와 Light(1980)는 메타분석이 개별 연구의 표집을 종합한 연구이므로 표본수를 증가시키지 않고도 통계적인 검정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메타분석은 단일연구 결과에서 계산하는 효과크기보다 더 정확한 효과크기를 추정할 수 있으며 연구하고자 하는 변인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양상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점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연구 결과가 서로 상충되었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Pillemer & Light, 1980). 따라서 메타분석은 서로 상이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수량적으로 종합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진로 준비행동과 관련된 변인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메타분석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연구 변인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실시하였다. 메타분석은 동일한 주제의 연구주제들의 상이한 양적 결과를 일정한 측정치로 환산 한 후 하나의 통계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분석 방법이다. 즉, 이미 분석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이를 위해 Jackson(1980)이 제시한 연구절차인 그림 Ⅲ-1를 기반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림 Ⅲ-1> 메타분석의 절차

2. 자료의 수집 및 선정

가.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의 개발 후 사용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석사·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수집하였다. 논문의 수집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홈페이지와 한국학술정보(주)에서 제공하는 학술데이터베이스(KISS) 홈페이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검색을 위한 검색어는 ‘진로준비행동’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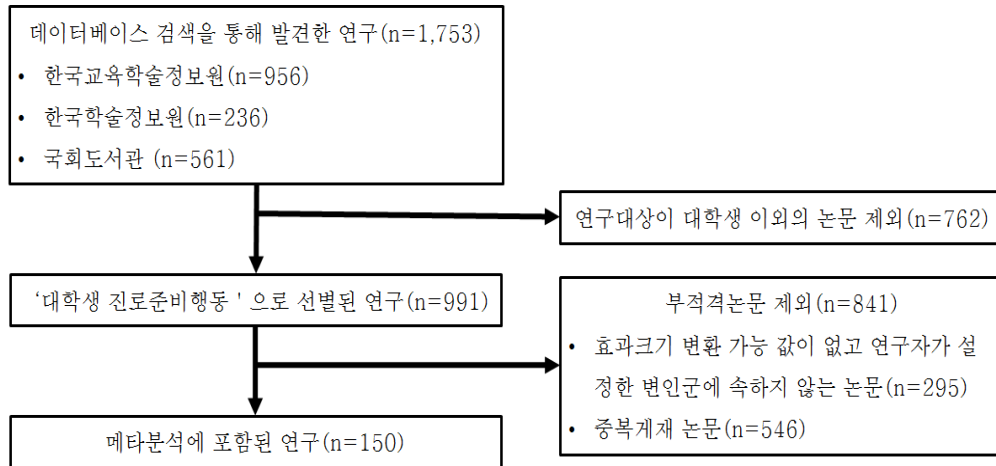
나. 자료의 선정

자료의 선정을 위해 기준을 세웠으며, 기준에 따라 분석에 포함할 논문을 선택하였다. 본 과정에서는 지도교수와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다.

분석에 사용된 논문들의 선정을 위해 먼저 ‘진로준비행동’ 검색어로 검색하여 수집된 1,753편의 논문에서 대학생이 연구대상이 아닌 연구물 762편을 제외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학생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논문 991편이 선정되었다.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논문 중에서는 효과크기로 변환할 수 있는 값이 없는 논문 및 본 연구자가 설정한 변인군에 속하는 변인이 없는 논문 295편, 중복 게재된 논문 546편을 제외하여 150편의 논문이 최종 선정 되었다.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변인 중에는 진로준비행동을 설명 할 수 있는 사회인지진로이론과 관련된 변인을 선정하였다. 사회인지진로이론과 관련된 변인으로 개인변인, 근접맥락변인, 자기효능감 변인, 목표 변인 군이 포함되었다. 또한 Choi(2012)에서 제시한 자기-개념(self-concept) 영역을 포함시켰다. 이 범주는 SCCT모델의 범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자주 측정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사회인지진로이론 모델을 확장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자기개념 범주를 추가하였다(Choi et al., 2012).



<그림 III-2> 분석대상 논문 선정과정 PRISMA flowchart

진로준비행동의 측정의 경우 대다수의 연구의 사용 척도가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로 분석되었으며,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보완되거나 수정된 척도 역시 김봉환(1997)이 개발한 척도를 기준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봉환(1997)의 개발척도와 연구를 위해 보완, 수정된 척도를 사용한 연구까지 포함하여 분석 하였다.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척도는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 16개의 문항을 직접 제작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던지 혹은 보충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검사 도구는 몇 가지 기초 작업을 수행하여 제작되었다. 첫 번째는 진로상담과 관련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진로를 결정했다고 확신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그 같은 결정에 이를 때까지 수행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진술토록 하는 면담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는 교육심리학 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 55명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진로 혹은 직업을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서 각자 5가지 이상의 구체적인 행동을 써서 제출하도록 하였다. 네 번째는 외국에서 기존에 개발된 도구들 중에서 진로준비행동과 깊이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도구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도구들은 Career Exploration

Survey(CES; Stumpf, Colarelli, & Hartman, 1983), Vocational Questionnaire II (Slaney, 1983), Career Planning Questionnaire(Westbrook et al., 1985) 등 이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처음에 20개의 문항을 선정한 후에 교육상담 및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가 6명에게 개별적인 자문을 받아서 부적합하거나 의미가 중첩된다고 판단되는 문항 4개를 삭제하고, 문항의 표현방식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16개의 문항을 확정하였다. 사범대학생 293명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준비행동검사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표는 아래와 같다(김봉환, 김계현, 1997).

표 III-1. 진로준비행동검사의 신뢰도

신뢰도 종류	Cronbach α	반분 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2주)
신뢰도 계수	.84	.74	.82	

분석을 위한 두 번째 기준으로 논문의 언어가 한국어이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로 한정 되었다. 위 기준을 적용하여, 대학생 중에서도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도 메타분석에 포함 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정 집단에는 체육전공 대학생, 관광 계열 관련 대학생, 여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등이 있다.

셋째, 논문은 2000년부터 2015년 까지 발간된 석사, 박사 학위논문이거나 학술지 논문이어야 하며, 온라인으로 원 논문 연람이 불가능한 논문은 제외하였다.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중복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학술지를 우선으로 선정 하였으나, 학술지에 누락된 연구결과는 학위논문을 참고하여 분석에 포함 시켰다.

넷째, 논문에 제시된 결과는 통일된 효과크기로 환산할 수 있는 논문을 선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 수, 표본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계수, t -값, F -값이 제시되어 있는 논문을 선정하였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척도의 총점에 대한 결과 값이 제시된 연구를 선정하였으며, 하위변인의 결과 값만 제시된 논문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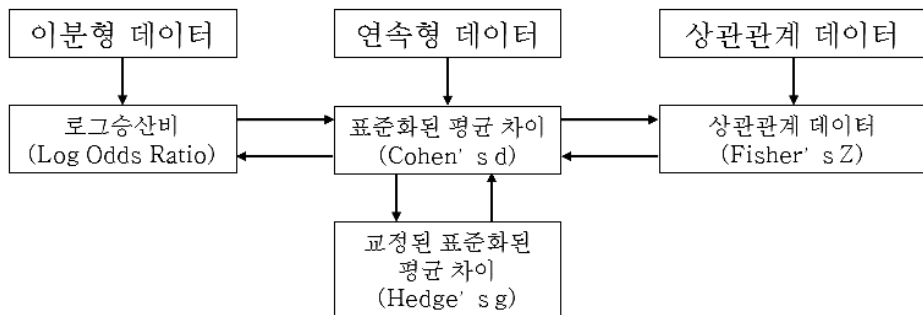
3. 자료의 처리

가. 자료의 코딩

수집된 논문의 코딩을 위해 기준을 설정 후 코딩을 진행하였다. 연구물의 기본 정보인 제목, 저자, 출처, 출판연도를 입력 하였으며, 표본의 특징으로 전체 학생 수, 남·여학생 수를 입력하였다. 메타분석을 위한 설계를 위하여 변인명과 측정 도구 또는 측정범위(남·여, 학년)를 입력하였다. 변인의 결과 치는 표본의 상관 계수, t -값, F -값, 각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수를 입력 하였으며, 코딩 표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자료 처리 중 설계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어려운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와 논의를 통하여 분석 포함 여부를 결정하였다.

나. 효과크기의 산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Pearson의 상관계수인 r 값을 효과크기 ES_r 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다양한 유형에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효과크기는 그림 III-3과 같이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Borenstein et al.,2009).



<그림 III-3> 다양한 효과 크기의 상호 전환

상관계수 r 값의 경우 분석 시 그대로 효과크기로 사용 할 경우 비대칭 분포로 인해 편향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Fisher's Z 로 환산하여 대칭 분포를 만든 후(Shadish & Haddock, 1994) 효과크기를 산출 하였다.

Fisher's Z 전환	$Z = 0.5 \times \ln\left(\frac{1+r}{1-r}\right)$
상관계수 r 재전환	$r = \frac{e^{2z} - 1}{e^{2z} + 1}$

<그림 III-4> Fisher's Z 전환 공식

t -값이 제시된 연구의 경우 t -값과 사례수를 이용하여 상관계수 효과크기를 산출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정지수 a 는 n_1 과 n_2 를 정확히 알 수 없을 시 $n_1=n_2$ 이라고 가정하고 $a=4$ 로 인정한다(황성동, 2015).

표준화된 평균 차이 변환(d)	$d = t \sqrt{\frac{n_1 + n_2}{n_1 n_2}}$
교정지수(a) 변환	$a = \frac{(n_1 + n_2)^2}{n_1 n_2}$
상관계수 r 전환	$r = \frac{d}{\sqrt{d^2 + a}}$

<그림 III-5> t -값의 전환 공식

F -값이 제시된 경우 F -값과 표본의 사례 수, 비교집단의 사례수를 적용하여 그림 III-6의 공식을 적용 할 수 있다.

표준화된 평균 차이 변환(d)	$d = 2 \frac{\sqrt{F}}{N}$
교정지수(a) 변환	$a = \frac{(n_1 + n_2)^2}{n_1 n_2}$
상관계수 r 전환	$r = \frac{d}{\sqrt{d^2 + a}}$

<그림 III-6> F -값의 전환 공식

다. 효과크기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위한 도구로 R 3.3.3(www.r-project.org)을 이용하였다. R프로그램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공개 프로그램(open software)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인 동시에 소프트웨어로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데이터 과학자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 및 학생들에게 사용되고 있다(황성동, 2015). R프로그램의 장점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을 받아 설치 할 수 있다는 점이며, 또 혁신적인 데이터 과학자들에 의해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선 및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공개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와 데이터 과학자들에 의해 새로운 프로그램 패키지들이 속속 개발, 업데이트 되고 있어 급속도로 활용되고 있다(R Core Team, 2014). 본 연구에서는 R 프로그램 내에 메타분석용 패키지(meta package)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을 통해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할 때는 각 연구에 맞는 평균 효과크기를 계산하는 방식을 정하여 분석하게 된다. 방식의 종류로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무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두 가지 모형이 있다.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모든 연구의 모집단 효과크기는 동일하다는 가정을 가지고 분

석하며, 무선효과모형의 경우 모든 연구의 모집단 효과크기는 서로 다르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실시한다. 모집단의 효과크기 다른 이유는 대상자, 개입방법,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본다(황성동, 2015). 연구마다 모수가 임의로 변한다고 가정하는 무선효과모형은 메타분석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연구들이 하나의 모집단으로부터 임의적으로 추출된 표본연구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무선효과모형으로부터 산출된 결과의 추론은 모집단으로 일반화 시킬 수 있다(오성삼, 2002).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무선효과모형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Light와 Pillemer(1984)의 깔때기 그림(funnel plot)를 사용하여 분석 대상이 되는 연구에 출판편향이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깔때기 그림은 포함된 연구들의 출판편향(publication bias)경향을 살펴 볼 수 있는 도구로써(Easterbrook, Gopalan, & Berlin, 1991), 대칭으로 그려지면 분석에서 고려한 연구들이 편향되지 않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안세영, 김종학, 최보영, 2015).

라. 효과크기의 해석

메타분석의 결과로 제시되는 효과크기의 지수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효과크기 지수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 것인가를 고민하던 끝에 Cohen(1977, 1988)의 연구에서 통계 검정력(Statistical Power)을 통해 대체적으로 행동과학 분야에 있어 표준화된 평균차, 즉 효과크기의 값을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오성삼,2002).

Cohen(1988)이 제안하는 상관계수의 효과크기 해석 기준을 적용하여 $ES_r \leq .10$ 은 작은 효과크기, $ES_r = .25$ 은 중간 효과크기, $ES_r \geq .40$ 은 큰 효과크기라고 해석 하였다. 또한 Cohen의 효과크기 해석은 행동과학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오성삼, 2002). 때문에 보다 정밀한 해석을 위해 비중복 백분위(percentiles of non-overlap: U_3)를 추가적인 정보로 활용하였다. 비중복 백분위는 효과크기를 확률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효과크기에 해당하는 Z점수를 표준정규분포의 누적확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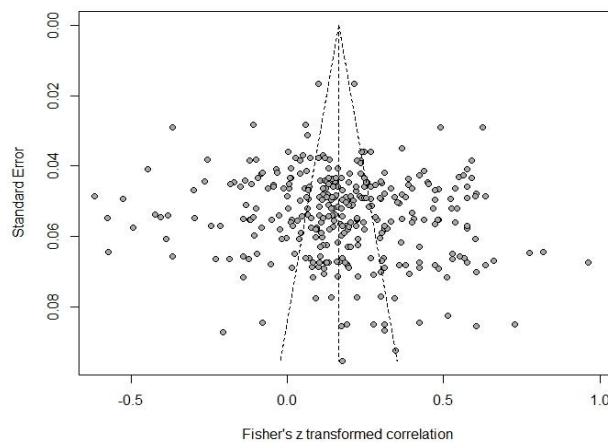
포 표에서 찾아서 이를 다시 백분율로 표시한 값이다(이명자, 2006).

IV. 연구결과

1. 출판편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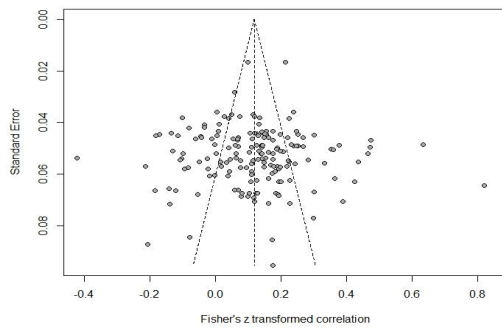
메타분석에서 표본의 크기와 효과크기의 관계를 보여주는 방법은 funnel plot을 통해서이다.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름이 붙은 funnel plot은 수평축에 효과크기를, 수직축에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표본이 큰 연구들은 그래프 상단에 위치하는데 가운데 직선, 즉 평균 효과크기 주변에 몰려있다. 하지만 표본크기가 작은 연구들은 그래프 하단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는 표본 크기가 작은 연구들은 효과 크기와 표준오차가 더 크기 때문이다. funnel plot의 대각선은 각 효과크기의 95% 신뢰구간을 나타낸다(황성동, 2015). 정밀도에 의한 그림에 따르면 출판편향이 없는 경우 종합된 효과크기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지만, 출판편향이 있을 경우에는 한쪽으로 많이 몰려있는 형태를 나타낸다(최영아, 2013).

본 연구에 사용된 전체 변인의 출판 편향은 그림 IV-1과 같다.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그림이 좌우 대칭의 형태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출판편향이 없다고 해석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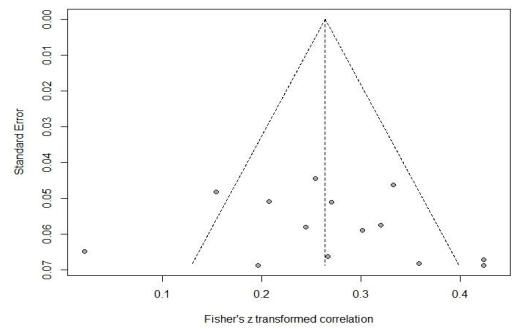


<그림 IV-1> 진로준비행동의 전체 출판편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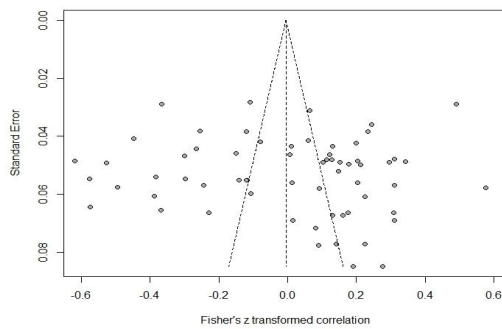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하위 변인군의 출판편향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그림이 표준효과크기를 기점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좌우대칭으로 안정적인 효과크기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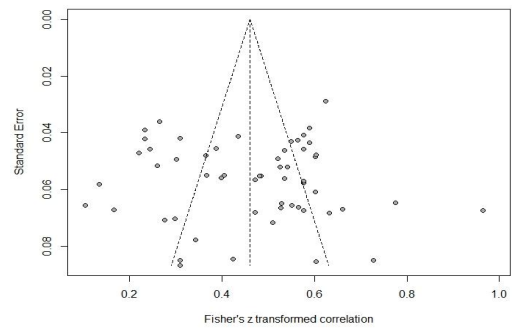
<그림 IV-2> 진로준비행동의 개인변인 출판편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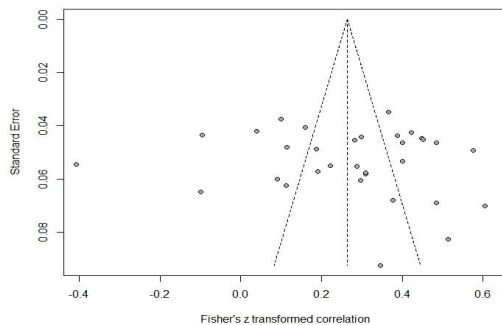
<그림 IV-3> 진로준비행동의 자기개념변인 출판편향



<그림 IV-4> 진로준비행동의 근접맥락 변인 출판편향



<그림 IV-5> 진로준비행동의 자기효능감 변인 출판편향



<그림 IV-6> 진로준비행동의 목표관련 변인 출판편향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단계에서는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분석대상 논문의 특징을 제시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로 총 효과크기 및 하위변인군의 효과크기, 하위변인군 별 효과크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논문의 수는 150편이며, 효과크기 수는 339개로 나타났다. 표 IV-1에는 메타분석에 사용된 논문의 특징을 수록 하였으며, 표 IV-2에는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에 대한 효과크기 수(K)를 수록 하였다.

표 IV-1. 분석 대상 논문의 특성

연구의 특징		논문의 수	합계
출판연도	2000	1	150
	2001	2	
	2002	2	
	2003	3	
	2004	3	
	2005	3	
	2006	4	
	2007	12	
	2008	7	
	2009	10	
	2010	12	
	2011	13	
	2012	15	
	2013	26	
	2014	18	
2015	19		
출간형태	학술지	82	150
	석사, 박사	68	
	학위논문		

표 IV-2 에서의 최종 분석된 효과크기 수(K)의 변인들을 살펴보면 총 5개의

변인군이 선정되었다. 본 변인군은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근거한 변인군과 의미 있는 결과치를 나타내는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변인을 자기개념(self-concept) 변인군으로 선정하였다. 개인변인 군에서는 8개의 변인이 추출 되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기본구인에 포함되는 개인변인은 성(gender), 민족 혹은 인종, 신체적 건강 혹은 장애, 유전적 재능 등을 개인의 진로흥미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 있다(김봉환 외, 2010). 본 연구에서는 개인변인을 성별, 연령, 학년, 성적을 포함시켰으며,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의 선택모형(Lent, Brown, & Heckett, 2002)에서 개인적배경의 변인으로 보는 성격 변인을 포함 시켜 분석 하였다. 자기개념(self-concept) 변인 군에는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변인이 추출되었다. 근접맥락 변인은 비교적 진로선택의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특정 진로를 추구 할 수 있는 가족의 정서적 및 재정적 지원, 당시의 경제 상황, 해당 시기의 사회문화적 진로장벽 등이 포함 된다(김봉환 외, 2010). 본 연구에서 근접맥락 변인 군에는 경제상황, 부모애착, 부모지지,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장벽 변인이 추출되었다. 자기효능감 변인 군에는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변인이 추출되었다. 자기효능감은 목표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이야기(Bandura, 1986)하는데, 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핵심개념으로서 자기효능감 연구에서 뿐 아니라 진로상담의 실제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변인이다(김봉환 외, 2010). 마지막으로 목표 변인군에는 진로결정수준 변인이 포함되었으며, 진로미결정을 측정한 연구들은 진로준비행동과 부적 상관 값을 제시하였으므로, 메타분석에 포함 할 때는 모두 정적인 방향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IV-2. 진로준비행동 관련 연구의 주요 변인

변인군	변인	효과크기수(K)	
개인변인	성별	62	
	연령	11	
	학년	64	
	성적	8	
	성격-완벽성	4	
	성격-탄력성	6	
	성격-불안	12	
	성격-희망	6	
	자기개념	자아정체감	3
		진로정체감	11
근접맥락	경제상황	4	
	부모애착	11	
	부모지지	5	
	사회적지지	12	
	진로결정자율성	4	
	진로장벽	27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10	
	진로결정자기효능감	46	
목표	진로결정수준	33	
총 효과크기수		339	

3. 변인군의 전체 효과크기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에 대하여 변인군 별 전체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 변인군이 효과크기 .43로 Cohen(1988)의 해석 기준으로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U_3 지수의 경우 66.77%이다. 이는 표준정규분포에서 통제집단의 평균점수를 50%로 했을 때 실험집단의 평균 .43은 통제집단 분포 상에서

는 66.77%로 통제집단에 비해 16.77% 높으므로, 진로준비행동 유발변인을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진로준비행동 유발변인을 경험한 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16.77%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효과크기가 높은 변인군은 목표 변인군으로 효과크기 .26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U_3 지수는 60.40%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높은 변인군은 자기개념 변인군으로 효과크기 .26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U_3 지수는 60.31%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개인변인군의 평균크기는 .11으로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U_3 지수는 54.6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근접맥락변인의 효과크기는 -.001이며, U_3 지수는 49.96%로 나타났다. 개인변인군과 근접맥락변인군의 경우 추출된 변인들이 정적상관의 평균 효과크기를 보이는 변인과 진로장벽과 같은 부적상관의 평균 효과크기를 나타내는 변인이 포함되어 분석되어 변인군 전체 효과크기가 낮게 나타났다.

표 IV-3.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 군 별 효과크기

	효과 크기 수	평균 효과크기 (ESr)	95% 신뢰구간		백분위 (U_3)	순위
			상한	하한		
개인변인 전체	173	0.11	0.09	0.13	54.67%	4
자기개념 전체	14	0.26	0.21	0.30	60.31%	3
근접맥락변인 전체	63	-0.001	-0.07	0.06	49.96%	5
자기효능감 전체	56	0.43	0.39	0.46	66.77%	1
목표 전체	33	0.26	0.19	0.32	60.40%	2

4. 개인변인의 효과크기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개인변인군의 변인별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개인변인군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성격변인 중에도 탄력성 변인이 효과크기는 .41로 큰 효과크기를 보였고 변인군 중에서도 효과크기가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성격변인의 희망변인이 .37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학년 변인이 .16로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연령 효과크기는 .15로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성적 변인의 경우 효과크기 .14로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성격변인 중 불안 변인은 효과크기 -.11로 부적상관으로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이는 불안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덜 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격 변인 중 완벽성 변인은 .07의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성별변인의 경우 효과크기 .04로 나타났다. 성별변인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을 차이를 분석한 t -값을 변환한 분석치를 사용하였는데, 62개의 효과크기 중 19개의 효과크기 수는 여학생이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 값이 나왔으며 남은 43개의 효과크기 수는 남학생이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 값이 나왔다. 서로 상충되는 결과가 분석 되어 최종 효과크기인 .04가 산출되었다. 성별 변인 이외에도 학년, 성격변인의 완벽성과 불안 변인에서 부적상관과 정적상관이 함께 메타분석이 되었다.

개인변인 군에 각 변인의 효과크기를 비중복 백분위 지수(U_3)로 환산한 결과를 보면, 성격변인 중 탄력성 변인의 백분위 지수(U_3)는 66.11%인데, 탄력성이 높지 않은 학생에 비해 탄력성이 높은 대학생이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16.11%만큼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성격변인 중 희망변인이 14.52%, 학년 변인이 6.64%, 연령 변인이 6.15%, 성적 변인이 5.93%, 성격 특성 중 완벽성 변인이 3.13%, 성별 변인이 1.77%씩 각 변인을 경험하지 않은 비교집단, 혹은 변인의 서열의 값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격 특성 중 불안 변인의 경우 불안을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4.67% 정도 진로준비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진로준비행동과 개인변인군의 변인별 효과크기

	효과 크기 수	평균효과크기 (ESr)	95%신뢰구간		백분위 (U ₃)	순위
			상한	하한		
성별	62	0.04	0.02	0.06	51.77%	8
연령	11	0.15	0.11	0.19	56.15%	4
학년	64	0.16	0.14	0.18	56.64%	3
성적	8	0.14	0.10	0.18	55.93%	5
성격-완벽성	4	0.07	-0.10	0.25	53.13%	7
성격-탄력성	6	0.41	0.29	0.52	66.11%	1
성격-불안	12	-0.11	-0.19	-0.03	45.33%	6
성격-희망	6	0.37	0.24	0.49	64.52%	2

5. 자기개념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자기개념군의 변인별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자기개념 군에서는 자아정체감이 효과크기 .31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진로정체감 변인은 효과크기 .24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자기개념군의 각 변인의 효과크기를 비중복 백분위 지수(U_3)로 환산한 결과를 보면, 자아정체감의 평균 효과크기에 대한 백분위 지수(U_3)는 62.46%로 자아정체감이 높지 않은 집단 보다 12.46% 진로준비행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정체감의 백분위 지수(U_3)는 59.86%로 진로정체감이 높지 않은 집단보다 9.86% 진로준비행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진로준비행동과 자기개념군의 변인별 효과크기

	효과 크기 수	평균 효과크기 (ESr)	95%신뢰구간		백분위 (U_3)	순위
			상한	하한		
자아정체감	3	0.31	0.13	0.47	62.46%	1
진로정체감	11	0.24	0.20	0.29	59.86%	2

6. 근접맥락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근접맥락 변인의 변인별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 근접맥락 변인 군에서는 사회적지지가 .26의 효과크기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부모지지 변인도 효과크기 .26으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또한 진로장벽 변인에서는 효과크기가 -.25의 중간크기의 효과크기가 나왔으며 이는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애착변인은 .14의 효과크기로 작은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경제상황은 .13로 작은 효과크기를

보였는데 이는 경제상황이 양호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리고 진로결정자율성의 경우 .08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근접맥락 변인군의 각 변인의 효과크기를 비중복 백분위 지수(U_3)로 환산한 결과를 보면, 사회적지지 변인은 백분위 지수(U_3) 60.38%로 사회적지지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사회적지지를 받은 집단이 10.38%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 역시 백분위 지수(U_3) 60.35%로 부모지지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부모지지를 받은 집단이 10.35%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장벽의 경우 백분위 지수(U_3) 39.83%로 진로장벽을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10.17% 정도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애착의 백분위 지수(U_3)는 5.84%, 경제상황은 5.19%, 진로결정자율성은 3.3%씩 각 변인을 경험하지 않거나 서열 값이 낮은 비교집단에 비해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진로준비행동과 근접맥락 변인군의 변인별 효과크기

	효과 크기 수	평균효과크기 (ESr)	95%신뢰구간		백분위 (U_3)	순위
			상한	하한		
경제상황	4	0.13	0.05	0.20	55.19%	5
부모애착	11	0.14	0.10	0.19	55.84%	4
부모지지	5	0.26	0.09	0.41	60.35%	2
사회적지지	12	0.26	0.19	0.33	60.38%	1
진로결정자율성	4	0.08	0.00	0.16	53.30%	6
진로장벽	27	-0.25	-0.32	-0.19	39.83%	3

7. 자기효능감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자기효능감 변인의 변인별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IV-7와 같다. 자기효능감 변인군 중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변인은 효과크기 .45로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 변인은 효과크기 .30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또한 자기효능감 변인군에서 추출된 변인의 비중복 백분위 지수(U_3)를 살펴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변인의 백분위 지수(U_3)는 67.64%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해 17.64%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변인 역시 61.93%의 백분위 지수(U_3)를 보여 자기효능감이 높지 않은 집단보다 11.93%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진로준비행동과 자기효능감 변인군의 변인별 효과크기

	효과 크기 수	평균효과크기 (ESr)	95%신뢰구간		백분위 (U_3)	순위
			상한	하한		
자기효능감	10	0.30	0.22	0.37	61.93%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6	0.45	0.42	0.49	67.64%	1

8. 목표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목표 관련 변인에 포함된 진로결정수준 변인의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IV-8와 같다. 진로결정수준의 평균 효과크기는 .26로 나타나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이를 비중복 백분위 지수(U_3)로 환산하였을 때 60.40%로 나타나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10.40% 높음을 나타냈다.

표 IV-8. 진로준비행동과 목표 변인 군의 변인 효과크기

	효과 크기 수	평균효과크기 (ESr)	95%신뢰구간		백분위 (U ₃)
			상한	하한	
진로결정수준	33	0.26	0.19	0.32	60.40%

V. 논의 및 결론

최근 높은 실업률과 경제 저성장화가 지속되면서 대한민국의 청년인 대학생들이 자신이 가고자 했던 진로에 대한 포기나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현상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사회현상과 관련하여 국내의 진로에 대한 직접적인 탐색과 활동을 이야기하는 진로준비행동 변인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연구의 양이 누적되고 있으며, 해가 바뀔수록 연도별 연구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는 상충되는 결론을 도출하거나 각각의 관심 변인들의 관계를 증명 할 뿐 연구들을 종합하여 그동안의 결과를 증명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단계까지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동안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하여 어떤 변인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크기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 연구의 의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결과 밝혀진 결과를 설정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논의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총 5가지 영역으로 요약되었고 총 19개의 변인이 추출되었다. 관련 변인군에서는 개인변인, 자기개념, 근접맥락, 자기효능감, 목표 변인으로 영역이 요약되었으며, 개인변인에는 성별, 연령, 학년, 성적, 성격특성 중 완벽성, 탄력성, 불안, 희망 변인이 추출되었다. 자기개념 변인군에는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변인이 추출되었으며, 근접맥락 변인군에서는 경제상황, 부모애착, 부모지지,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장벽 변인이 추출 되었다. 자기효능감 변인군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추출되었으며, 목표변인에는 진로결정 수준이 추출되었다.

다섯가지 영역 중에는 근접맥락변인의 효과 크기 수가 가장 많이 분석 되었는데

데 이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활발해지며, 연구의 관심이 개인의 인지적, 태도적인 변인을 밝히는 연구 이외에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으로도 연구자들의 관심이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추출된 변인 중에서 개인변인군의 성별(k=62)과 학년(k=64)이 가장 많은 효과크기 수를 가졌다. 성별과 학년 변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효과크기 수를 가지고 분석한 변인은 46개의 효과크기 수로 분석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선택모형에서도 결과기대, 흥미, 목표선택, 활동의 선택, 실행영역 및 성취 영역 까지도 영향을 주는 자기효능감의 변인이다. 때문에 국내 진로발달 연구에서도 연구가 꾸준히 되어 있어 본 연구의 메타분석에서 가장 많은 효과크기 수로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둘째,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군별 전체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사회인지진로이론상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 변인군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자기효능감의 효과크기는 .43였으며 비중복 백분위(U₃)는 66.77%로 자기효능감이 높지 않은 집단보다 16.77% 정도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변인군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목표변인군이 효과크기 .26로 나타났으며, 자기개념 변인이 효과크기 .26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개인변인과 근접맥락변인은 효과크기가 각각 .11과 -.001로 상대적으로 값이 작았는데 이는 개인변인과 근접맥락변인에 포함된 변인들이 진로준비행동을 유발하는 변인과 억제하는 변인이 함께 포함되어 결과 값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표 V-1.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변인의 효과크기

	효과 크기 수	평균효과크기 (ESr)	95%신뢰구간		백분위 (U ₃)	순위
			상한	하한		
성별	62	0.04	0.02	0.06	51.77%	17
연령	11	0.15	0.11	0.19	56.15%	11
학년	64	0.16	0.14	0.18	56.64%	10
성적	8	0.14	0.10	0.18	55.93%	12
성격-완벽성	4	0.07	-0.10	0.25	53.13%	16
성격-탄력성	6	0.41	0.29	0.52	66.11%	2
성격-불안	12	-0.11	-0.19	-0.03	45.33%	18
성격-희망	6	0.37	0.24	0.49	64.52%	3
자아정체감	3	0.31	0.13	0.47	62.46%	4
진로정체감	11	0.24	0.20	0.29	59.86%	9
경제상황	4	0.13	0.05	0.20	55.19%	14
부모애착	11	0.14	0.10	0.19	55.84%	13
부모지지	5	0.26	0.09	0.41	60.35%	8
사회적지지	12	0.26	0.19	0.33	60.38%	7
진로결정자율성	4	0.08	0.00	0.16	53.30%	15
진로장벽	27	-0.25	-0.32	-0.19	39.83%	19
자기효능감	10	0.30	0.22	0.37	61.93%	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6	0.45	0.42	0.49	67.64%	1
진로결정수준	33	0.26	0.19	0.32	60.40%	6

셋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각 변인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인 변인은 자기효능감 변인군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효과크기 .45로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또한 95%의 신뢰구간에서 상한 값이 .42이고 하한값이 .49인 것으로 보아 효과크기 분석에 포함된 효과크기 수가 46개로 많은 편임을 감안 할 때 큰 효과크기의 값이 안정적으로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진로준비행동을 유발하는 변인 중 가장 중요한 변인 중에 하나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는 선행연구인 이미진(2012)의 연구에서도 드러나는 결과이다. 이미진(2012)의 연구에서는 분석논문의 대상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되었다는 점에서 두 분석결과를 비교하기 쉽지 않기는 하나 평균효과크기가 .92로 큰 효과크기를 가졌다는 점에서 본연구와 의미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효과크기가 큰 변인은 성격 특성에 탄력성 변인이다. 효과크기가 .41로 큰 효과크기로 분석되었으며, 더불어 성격특성 중 희망변인의 효과크기가 .37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정체감은 효과크기 .31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 변인은 효과크기가 .30으로 양 변인 모두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목표변인의 진로결정수준 역시 효과크기 .26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근접맥락 부분에서는 진로장벽의 효과크기가 -.25로 진로준비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사회적지지와 부모지지의 효과크기가 각각 .26과 .26로 진로행동을 유발하는 효과크기가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반면 이미진(2012)의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지지가 효과크기 1.11로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는데 이는 진로준비행동과 부모지지의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로 인한 결과라고 설명 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본 연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대학생이 청소년보다 부모지지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큰효과크기와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살펴보았을 때 진로준비행동을 억제하는 변인도 있지만 행동을 유발하는 변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석된 변인중 성별의 경우 효과크기 .04를 나타냈고 비중복 백분위(U_3)의 경우 51.77%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77% 진로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성별 변인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분석에

있어 상충되는 결과 값들이 발생하여 최종 결과가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드러나는 결과 값으로 이미진(2012)의 연구에서도 성별변인의 평균효과크기가 .027로 상충되는 결과 값이 발생하여 효과크기가 작았음을 설명 하였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위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유발을 위한 진로상담이나 서비스 제공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변인의 관계를 메타분석하고 분석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를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상이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인 결론으로 도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5년간 발간된 국내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 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준비행동에 국내 연구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한 진로준비행동을 연구함에 있어 주요구인에 대한 국내 연구의 동향과 변인들의 효과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추후 연구 문제를 효율적으로 제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진로장벽, 불안 변인이 진로준비행동을 억제하는 효과크기를 가진 것을 보여주었으나, 이러한 억제 변인 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탄력성, 희망, 부모지지, 사회지지와 같은 유발변인이 진로준비행동의 영향을 주는 효과크기가 더 크다는 점을 발견함으로써 대학생에게 제공되는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진로상담이나 진로서비스 제공시 적용 될 수 있는 지점이 많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하위변인 통계치를 배제하고 변인의 전체 통계치만 나온 변인들을 선정하였다. 때문에 심리적 독립 등 하위변인의 분석에서 의미가 있는 변인들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한 변인에 대한 추가 메타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하위변인의 분석 통계치 중 의미가 있는 변인들을 통

합하는 시도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물에 한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진로발달 과정에서 대학생 시기가 진로 결정에 주요한 시기라는 점을 바탕으로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집단의 특성에 따라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변인의 효과크기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VI. 참고문헌

*표가 있는 것은 메타분석에 포함된 참고문헌임.

*가수정(2013). **전문대학생의 완벽주의, 취업스트레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영미, 유순화, 윤경미(2009). 전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진로장애와 자아탄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 415-438.

*강운심(2010).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정은(2008). **진로장벽,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4년제 여자대학생과 전문대 여자대학생의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현희(2015). 폴리텍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8(1), 59-78.

*강혜원, 홍계옥(2010). 전문대학생의 문제해결에 대한 자기평가와 성적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문대학교교육학회논문집**, 11(1), 11-20.

*강희순(2010).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스트레스 대처전략,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3(3), 141-155.

*고경필, 심미영(2014).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7(1), 19-38.

고성자, 이영화, 홍성관, 김형갑(2015). 진로준비행동 향상을 위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4), 329-354.

*고영지, 김인경(2011).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1), 62-71.

*고태용(2008).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이 대학생들의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구본용, 유제민(2010). 부모의 긍정적 관여와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1), 171-187.

금경희, 조영아(2017). 중학생이 지각하는 모의 학습관여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 269-281.

*금선미(2009). 여대생이 지각한 희망과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길현정(2013). 사회복지학 전공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 영향 요인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경욱(2009).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21(2), 501-519.

*김경태(2003). 특성불안과 비합리적 신념이 진로 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학생의 비교.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남홍(2001).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명옥, 박영숙(2012).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1), 69-90.

*김미란(2007).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미영(2015). 비서학 전공 졸업예정자의 진로준비행동의 영향 원천과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질적연구. **비서학논총**, 24(2), 143-162.

*김미주(2011).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민정, 양현정(2015). 진로준비행동, 취업스트레스,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진로준비 유형 탐색. **상담학연구**, 16(1), 95-110.

*김봉환(2010). 여대생의 적응유연성,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 진로교육연구, 23(4), 93-111.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영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봉환, 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영화.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봉환, 이제경, 유현실, 황매향, 공윤정, 손진희, 강혜영, 김지현, 유정이, 임은미, 손은령(2010). **진로상담이론:한국 내담자에 대한 적용**. 서울:학지사.
- *김선중(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선환(2007).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사회복지전공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정, 송성화, 조민경(2013).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진로교육연구**, 26(4), 85-107.
- *김영태(2005).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논문집**, 34, 81-104.
- 김영혜, 안현의(2012). 사회인지진로이론적 관점에 근거한 국내 진로발달연구의 동향 분석-대학생 연구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5(4), 1-18.
- *김영화, 김계현(2011).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른 대학생의 진로결정문제,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청소년상담연구**, 19(1), 169-182.
- *김장희(2014).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영향 요인 및 진로의사결정수준의 매개효과 분석. **직업교육연구**, 33(2), 121-144.
- *김정근(2012). 개인 및 환경특성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5(3), 161-179.
- 김정화, 김미경, 김진경, 고은영(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장애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학교**, 9(2), 417-442.
- *김정화, 김미경, 김진경, 고은영(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장애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학교**, 9(2), 417-442.
- *김종운, 윤명희, 박성실, 서희정(2009). 여대생의 성격유형 및 진로의사결정유형

- 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2(4), 195-217.
- *김종학, 최보영(2015).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4), 143-169.
- *김주희(2013).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조절학습과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선(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진로유형화**.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연, 이기학(2014).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7(3), 1-25.
- *김지연, 이기학(2014).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7(3), 1-25.
- *김지연, 이주연, 이기학(2014).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1), 416-416.
- 김지혜(2008).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질적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진숙(2013). 중학생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상담학연구**, 14(2), 1247-1363.
- *김행수(2010).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기 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수, 장기명, 이난(2004).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적용이 대학생의 진로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18(1), 261-218.
- *김형균(2003).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성별, 학년별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주(2014). **다차원적 완벽주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진(2001).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 369-393.
- *나태균, 정양식(2011). 외식조리 관련 전공자의 학년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분석. **한국조리학회지**, 17(4), 238-250.

- *문명녀(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애착과 진로기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7), 221-245.
- *문선아(2000). 불안과 성취동기가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승태, 박미하(2013).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6(3), 185-204.
- *박고운, 이기학(2007). 진로결정자율성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9(2), 409-422.
- *박대성(2014). 보건계열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2(19), 415-423.
- *박민지, 김계현(2015). 대학생의 진로발달 변인에 기초한 군집유형별 진로서비스 요구의 차이. **상담학연구**, 16(4), 193-208.
- *박선영(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소연, 이숙정(2013). 여대생의 진로결정자율성과 관계성이 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7(3), 611-628.
- *박수정(2014).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숙경(2013). 여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신영, 이동형(2013). 진로결정수준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 **직업교육연구**, 32(1), 23-38.
- *박예영, 이동형(2014).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구직효능감의 역할. **직업교육연구**, 33(2), 85-101.
- 박완성(2003). 고등학생 대상 진로준비행동검사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연구**, 15(2), 121-143.
- *박윤아(2011). 대학생의 완벽성과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연세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정희, 김홍석(2009).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1), 125-144.

*박주연(2013). 자기주도학습, 창의성,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지원(1985). 사회적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지은(2006).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초희(2012). 대학생의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충훈(2009).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혜선(2011). 여대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혜선, 김봉환(2013). 여대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4(1), 343-357.

*백사인(2011). 대학 졸업반 학생의 취업장애 인식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1(2), 91-109.

서우석(2017). 포트폴리오형 진로개발프로그램이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실과교육연구, 23(1), 187-206.

*서유진(2007). 진로장애와 낙관성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화정(2008). 대학생의 지각된 진로장벽 수준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희정, 윤명희(2011). 대학생용 진로준비행동검사의 개발 및 진로행동 분석. 진로교육연구, 24(3), 117-134.

*성지아, 방소연, 김순이(2012).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정체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인건강과학회지, 2(2), 29-38.

- *성지혜(2013).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사회적지지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하은(2013).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관련변인의 메타분석:국내 대학생 대상 연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소연희(2011). 사범대학생의 자기결정욕구,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의 구조적 관계 분석. **직업교육연구**, 30(2), 117-134.
- *손수진(2007). 가정환경과 자기 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은령(2006). 대학생의 귀인성향과 진로행동. **상담학연구**, 7(3), 819-835.
- 손은령, 김계현(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4(1), 121-139.
- *손은령, 손진희(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송윤정, 조규관(2015).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학습몰입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4), 355-374.
- 송윤정, 조규관(2015).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학습몰입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4), 355-374.
- *송현심, 홍혜영(2010).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 신종임, 현채송(2008). 부모 지지, 희망 및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1(2), 45-59.
- *신종임, 현채송(2008). 부모 지지, 희망 및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동서정신과학**, 11(2), 45-59.
- *신지영, 박성실, 형정은(2012).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5(1), 19-35.
- *안권순, 한건환(2002). 청년기의 개인 특성, 성 역할 정체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36, 73-102.
- 안세영, 김종학, 최보영(2015). 대학생 자살생각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학교**, 12(3), 385-405.

- *안형준(2013).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진로정체감,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재원, 양은주, 김근영(2012). 대학생의 애착과 진로행동 간의 관계에서 서술정체성 의미부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55-76.
- *양진희(2007). **심리적 독립,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여대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현주(2014). **성역할정체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혜주, 여인성, 원도연(2013). 무용학과 대학생의 멘토링 관계가 회복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2(5), 1089-1102.
- 어은선, 탁진국(2014). 독서를 활용한 중학생의 진로그룹코칭의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21(10), 391-413.
- 오성삼(2002).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 건국대학교 출판부.
- *오은영(2013).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은주(2014). 대학생의 특성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7(2), 85-107.
- *위선희(2013). **부모지지가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미정, 최애경(2008).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전문대학 비서학 전공생을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19, 129-153.
- 유수복(2013).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유수복, 윤혜미(2014).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9(3), 405-421.
- *유하림(2007). **전문대학 여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훈, 김계현(2015). 장애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장애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6(5), 157-170.
- *유희정(2004). **전문대학생의 자아분화 정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준비 행동**.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희정(2015).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장벽 지각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서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7(2), 261-280.
- *윤영미(2013).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과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 *지역사회개발연구*, 38(2), 21-30.
- 이광자(2004). **부모 지지와 고등학생 진로발달과의 관계 연구 : 일반계, 산업정보계, 실업계의 비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기엽(2012).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기학(2003). 대학생의 진로선택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미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청소년상담학연구*, 11(1), 13-21.
- 이기학(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 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명자(2006).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의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발육발달학회지*, 14(1), 51-60.
- *이명희(2012). **대학생의 일 가치관과 여가 가치관, 그리고 성역할태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진(2012). **진로준비행동 관련변인의 메타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보미(2006). **체육계열 대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성애(2005). **성역할정체감유형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차이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순주(2009).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및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예진, 이기학(2010). 진로동기수준에 따른 군집 유형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직업교육연구**, 29(2), 267-287.
- *이은주(2011). **대학생의 취업불안 및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재복(2015). **대학생 대상 진로개입 유형별 성과 비교**.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재창, 박미진, 김진희(200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상담에 대한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2), 111-127.
- *이정희(2015).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제경, 김동일(2004).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심리적 특성. **상담학연구**, 5(4), 993-1016.
- 이제경, 이승구(2007). 취업 청소년의 진로기대 및 취업준비행동. **진로교육연구**, 20(3), 121-137.
- *이종길(2009). 사회체육 전공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이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7(1), 13-26.
- *이종찬, 홍아정(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고용가능성에 차이와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HRD연구**, 15(3), 215-245.
- *이종찬, 홍아정(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6(1), 69-92.
- *이주연(2011). 무용전공대학생들의 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7, 215-230.
- *이주연, 이기학(2014).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진로교육연구**, 27(1), 65-81.
- *이주희(2004). 대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1), 103-115.

- 이지연(2013).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청소년학연구**, 20(6), 219-241.
- *이지혜(201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자기결정성, 진로의식성숙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3), 133-154.
- 이진원(2014). **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학균(2013).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불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 행동에 관한 구조모형 분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혜리, 조한익(2006).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353-371.
- *이현주(2008). 대학생의 사회불안, 진로결정장애,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녀 차이. **진로교육연구**, 21(2), 109-125.
- *이현진(2009).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희정, 김금미(2010). 경력단여성의 진로장벽지각이 진로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2), 623-640.
- *임경숙(2012). **대학생의 유머감각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수진(2015). 부모애착과 심리적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학교**, 12(3), 329-363.
- *임은미, 이명숙(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학생상담연구**, 1, 101-113.
- *임은정(2010). **무용전공 대학생의 멘토관계기능이 진로의식성숙 및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혜경(2017). 장애청소년의 개인·사회적 변인과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특성의 관계.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0(1), 139-160.
- 임혜경, 강영심(2015). 전환기 장애청소년이 지각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7(4), 211-236.
- *장선량(2004). 대학생의 성격유형과 학년 수준이 진로 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 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연구**, 12, 105-126.
- *장연정(2013).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진로포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윤정(2007). **무용과 대학생의 학습동기, 학습태도,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인과모형 검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윤희(2002). **성역할정체감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이슬, 송병국(2015).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2(7), 363-392.
- *장태정(2015).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현지, 홍아정(2014).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성찰학습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3(2), 17-40.
- 장희숙(1997).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1), 88-106.
- *전미리, 김봉환(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성격 5요인과 인지,행동적 변인의 영향 :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관점**. **진로교육연구**, 28(4), 41-57.
- *전미애(2006).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미현(2013).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기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자기분화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대인, 홍아정(2015). **사회적 지지와 일상적 창의성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연구**, 33(2), 39-59.
- *정미경(2015).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간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1(3), 85-106.
- *정민주, 박인혜(2015).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7(1), 213-232.
- *정선욱(2015). **대학에 진학한 시설 퇴소 청년의 진로준비행동 영향요인 : 사회적**

- 지지와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6(1), 191-214.
- *정세영, 박재국(2013).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6(3), 133-150.
- 정소영, 이한주(2014).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분석 :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28(4), 1-29.
- *정승현, 김금미(2010). 정서지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2), 739-753.
- *정진희(2012).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효경(2009). **여대생의 진로장벽과 자기격려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기운(2012).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명실, 최경숙(2007).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3), 1085-1099.
- 조성심, 주석진(2015). 체험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분석. **진로교육연구**, 23(3), 47-64.
- *조연교(2014). **대학생의 성격강점과 활용이 진로태도성숙도, 진로준비행동,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지혜(2007).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태영, 이민순(2009). 항공 운항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직업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차이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지**, 7(1), 69-86.
- *조현재(2014). 대학생의 개인특성이 진로미결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33(4), 103-127.
- *조현철(2015). **대학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장애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주명진(2010). **대학생의 불안과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

- 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주명진, 김정남(2011). **대학생의 불안과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논총**, 27, 157-174.
- 진미경(1999).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진로유형화와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진준혁(2010).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진현정(2011).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차아름, 이희경(2014). **심리적 진로장벽, 환경적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희망을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5(1), 343-358.
- 청년위원회(2016.01.27.). **대학 진로교육 실태 모니터링 연구 결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최길순, 이창희(2012). **응급구조과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응급구조학회지**, 16(3), 91-102.
- 최동선(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애착간의 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미량(2016.01.3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위한 1년 ‘갬이어’..안되는 걸까요?. 파이낸셜뉴스 보도자료.
- *최숙현(2007).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영아(2013). **자기조절학습과 정의적 특성의 관련성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유진, 손은정(2016). **경력단절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여성**, 21(4), 729-768.
- *최종인, 한태용, 이영훈(2014). **체육전공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정체감 진로 의사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3(5), 113-126.
- *하정, 홍지영(2013).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수준간의 관계에서 진로**

- 결정몰입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4(1), 353-374.
- *하정윤(2012). 지방대 신입생의 개인변인과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정신(1991). 한국대학생 문제진단검사 개발연구. *학생생활연구*, 17, 1-53.
- *한주원(2013). 비서학전공 전문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비서학논총*, 22(2), 117-140.
- *한태용, 이계석, 최성범(2013). 체육계열 대학생의 일과 여가에 대한 가치관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학회지*, 22(2), 389-399.
- *허형원, 손은령(2011). 재한 중국유학생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4(1), 51-66.
- *홍혜영, 강혜영(2013). 남자대학생의 군 의무복무계획 수준에 따른 진로장벽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8(2), 218-239.
- *황로(2014). 재한 중국유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진로의사결정능력을 매개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범철(2008). 태권도전공 학생의 진로결정태도 모형.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황성동(2015). R을 이용한 메타분석. 학지사.
- 황정규(1995). 개인차와 학교학습: 접근의 대안 탐색. *서울대학교 사대논총*, 50, 1-42.
- *황정희, 임석빈(2015). 전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고용가능성,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 *진로교육연구*, 28(2), 87-105.
- Ainsworth, M. D. (1989). Attachmentbeyond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Astin, A. S. (1984). The meaning of work in woman's lives : A sociopsychological model of career choice and work behavior.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2, 117-126.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c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19-215.
- Birch, D. A. (1998). Identifying source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School Health, 68*(4), 159-161.
- Bo Young Choi, Heerak Park, Eunjoo Yang, Seul Ki Lee, Yedana Lee, and Sang Min Lee (2012). Understanding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 Meta-Analytic Approach.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9*(5), 443-460.
- Borenstein, M., Hedges, L., Higgins., & Rothstein, H. R. (2009).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West Sussex: John Wiley & Sons, Ltd.*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Brown, S. D. & Heath. L. (1984). Coping with critical life events: An integrative cognitive-behavioral model for research and practice.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545-548.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ed.).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rites (1969).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Crites (1973). *Career Maturity Inventory. Monterey, Calif. : CTB/McGraw-Hill.*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 Easterbrook, P. J., Gopalan, R., Berlin, J. A. (1991). Publication bias in clinical research. *The Lancet*, 337, 867-872.
- Erikson E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2), 103-115.
-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 *New York*.
- Glass, D. (1976). Primary, Secondary, and Meta-Analysis in Social Research. *Beverly Hills, CA : Sage*.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470.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Reading, MA: Addison-Wesley*.
- Jackson. G. (1980). Methods for integrative review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0, 438-484.
- Ketterson, T. U., & Blustein, D. L. (1997).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67-178.
- Larson, J. H., Busby, D. M., Wilson, S., Medora, N., & Allgood, S. (1994). The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problems: the career decision diagnostic assess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2, 323-328.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 Counseling Psychology*, 47(1), 36-49.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2).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In D. Brown & Associate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4, 255-311.
- Light, R. J., & Pillemer, D. B. (1984). Summing up: The science of reviewing research.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 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600-616.
- Mcwhiter, E. H. (1997). Perceived Barriers to Education and Career: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124-140.
- Newman, R. (2005). APA's Resilience Initiativ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6(3), 227-229.
- Pillemer, D. B. & R. J. Light. (1980). Synthesizing outcomes : How to use research evidence from many studi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50, 176-195.
- R Core Team. (2014).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URL <http://www.r-project.org/>.
- Rutter, M. (1987).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 Shadish, W. R., & Haddock, C. K. (1994). Combining estimates of effect sizes. In H. Cooper & L. V. Hedges (Eds.). *The handbook of research synthesis* NY: Russell Sage Foundation.
- Slaney, R. B. (1983). Influence of career indecision on treatment exploring the vocational interest of colleg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55-63.
- Smith, C. L., & Ggerhart, B. (1991). *The impact of job search strategy and interviewer assessments of employability on multiple measures of labor marker success*. Paper presented at the 1991 Academy of Management

- Meetings, Miami, FL.
- Snyder, C. R. (1994a). Hope and optimism. In V. S. Ramachandran (Ed.).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2, 535-542.
- Stotland, E. (1969). The Psychology of Hope. *Jossey-Bass, San Francisco, CA*.
- Stumpf, S. A. Colarelli, S. M., & Hartman, K. (1983). Development of the Career Exploration Survey (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191-226.
- Suddarth, B. H. (1996).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perfectionism: Exploring a continuum of psychological trai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Super, D. E. (1953). Vocational adjustment: Implementing a self-concept.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30, 88-92.
- Super, D. E. (1963). 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 *New York, NY: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Brown S. D, Brooks, L.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San Francisco · Oxford: Jossey-Bass publishers.
-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82-298.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Tiedman, D. V., & O'Hara, R. P. (1963).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Westbook, B. W., Sanford, E. E., O'Neil, P., Horne, D. F., Fleenor, J. & Garren, R. (1985). Predictive and construct validity of six experimental measures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s, 27, 338-355.

<Abstract>

**Meta-Analysis Methods of Variable Related to
University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ark Yu Ri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dviser: Bo Young Choi

This study conducted a meta-analysi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results of domestic studies on a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and related variables. For selection and classification of related variables, this study selected person inputs which is a construct variable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proximity context variable, self-efficacy variable, goals variable, and self-concept variable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construct variables in career development process of university students.

Researches included in the analysis are the published theses from 2000 to 2015. 150 studies among domestic studies that specifically analyze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were included and 339 effect sizes were used. R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effect size. This study conducted funnel plot to confirm bias of the publication, and used correlation coefficients as the conversion value of effect size for effect size analysis. The effect size was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Cohen(1988), and calculated the non-overlapping percentile(U_3) to complement an interpretation of the effect size.

The summary of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otal 5 variables and 19 related variables have been extracted fo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son inputs and contextual influences to choice behavior variable had the largest number of effect size, and gender, grade level,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variable were analyzed to have the highest effect size among related variables.

Secondly, among the whole variables, the self-efficacy variable showed great effect size, and self-concept and goals variables showed medium effect size. Also, the effect size of person inputs and contextual influences proximal to choice behavior variable was inadequate by variables that showed static effect and negative effect size on variables.

Thirdl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howed greatest effect size among related variable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elasticity showed great effect size as well. Also, hope, ego identity,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social support, and parent support were analyzed to be the medium effect size that shows static effect, and career barrier was analyzed to be the medium effect size that shows negative effect.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are variables that show negative effect as career barrier among variables that mak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but there were also variables that made positive effect a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lasticity, hope, social support, and parent support, and it has been identified that influence of these variables are hig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data that can comprehensively investigate results of domestic studie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and to be used as a base data that provides direction for improv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career counseling.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ta-Analysis, SCCT

부 록

부록 1. 코딩 표

1. 일련번호				
2. 논문제목				
3. 저자명				
4. 발행연도		5. 논문유형	1) 학위	2) 학술지
6. 표집(사례수)				
7. 진로준비행동의 사용 척도				
8. 관련변수 명				
9. 분석된 통계 값	1) 통계 값 유형	2) 통계 값	3) 통계 값 특성	(1) 그룹별 표본 수
				(2) 표본별 통계 값
10. 기타				